

## 고려해운

### 미군 광기지 건설자재 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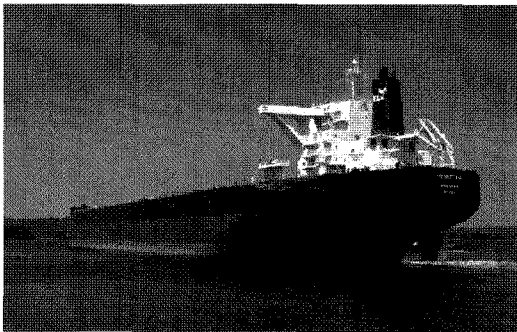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지난 9월15일 일본통운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이전 프로젝트와 관련 한국 - 광간 건설기자재 해상운송을 위한 국내대리점으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미군 광기지 건설에 향후 6~8년간 약 100억불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미국적(U.S. Flag) 선사만이 미군기지 건설기자재 및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함에 따라 미국적 선사인 Matson Navigation Company가 연말부터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한국, 일본, 대만) - 광간 신규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최대의 물류업체인 일본통운은 Matson의 아시아지역 총대리점이며, 이번 고려해운과의 한국대리점(General Agent)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공급하는 건설기자재를 운송할 예정이다.

## 대한해운

### 17만DWT급 대형벌크선 인수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9월 17일 일본 나무라조선소로부터 17만4000t급 대형 벌크선 포인세티아호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식에는 이진방 대한해운회장, 타츠히

코 나무라(Tatsuhiko Namura) 나무라조선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인세티아호는 길이 290m, 폭 45m의 대형벌크선으로, 오는 2026년까지 포스코 대체선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16년간 3200만t의 철광석을 운송하며 2억6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포인세티아호를 포함 총 13척의 사선이 포스코에 투입 중"이라고 말했다.

## 삼목해운

### 82K 캄사르막스 2척 발주

부정기선사인 삼목해운(대표 최운선)이 중국 조선소에 8만 2,000DWT급 캄사르막스벌커 2척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삼목해운은 2011년~2012년 납기로 Jiangsu Eastern Shipyard에 82K급 벌커 2척을 발주했으나 선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신조선가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한편에서는 척당 선가가 3,400만~3,500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삼목해운은 자사선 2척을 포함 총 10척의 핸드사이즈 선박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에스케이해운

### 5000억원대 유조선 4척 발주

SK해운(대표 황규호)이 올해 세 번째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며 수주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날 SK해운과 32만DWT급 초대형유조선(VLCC)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척당 가격은 약

1억500만달러(약 1184억원)선으로 전체 수주액은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선박들을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12년 하반기 인도할 계획이다.

SK해운이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것은 올해 세 번째로, 지난 6월 성동조선해양과 18만 DWT(재화중량톤수)급 케이프 사이즈 벌커 4척을 약 2억4000만달러에 발주한데 이어 현대중공업 측과 비슷한 규모의 벌커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5대 선사중 하나인 SK해운은 액화천연가스(LNG)선과 탱커, 벌커 등 상선 중심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에 지속적으로 선박을 발주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선사가 오랜만에 발주한 대형 물량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운시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으며, 타 해운사의 추가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VLCC 14척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24척의 유조선 수주했다.

## 에스티엑스팬오션

포스코와 20년 COA계약 체결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지난 9월15일 포스코와 20년간 약 3,630만 톤의 원료탄과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STX팬오션은 오는 2011년부터 2031년까지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원료탄과 철광석을 연간 약 182만 톤씩 수송하게 된다. 20년간 수송하는 물량은 최대3,630만 톤에 달하며, 현재 환율과 유가를 고려했을 때 매출규모는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STX팬오션은 1985년 포스코와의 첫 전용선 수행을 시작한 이래 현재 총 5척의 전용선을 투입해 운용하며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현대제철 등 국내 초 우량 화주들과도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 현재 국내에서만 총 12건의 전용선 계약을 수행 중이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국내 우량 화주들과의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뿐 아니라 국내 전략화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일조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TX팬오션은 적극적으로 장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매출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수송물량을 향후 5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 폴라리스쉬핑

VLOC 개조용 VLCC 2척 매입

지난 5월, 5번째 개조 VLOC인 26만DWT급 Stellar Galaxy호를 인수한 바 있는 폴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이 최근 추가로 VLOC로 개조하기 위해 싱글헬 VLCC 2을 추가로 매입했다.

최근 발표된 마켓리포트와 폴라리스쉬핑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선령 15~16년짜리 VLCC 2척을 적당 2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된 VLCC는 30만 1550dwt급 싱글헬 VLCC인 Hama Star호(1994년 건조)와 28만 1119dwt급 싱글헬 VLCC인 Hyundai Star호(1995년 건조)

등 2척으로 플라리스쉬핑의 6~7번째 VLOC로 개조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VLOC 운용선대를 자랑하는 플라리스쉬핑은 11월초께 이번에 매입한 VLCC를 인도받는데로 중국 조선소에서 VLOC 개조작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조되는 선박들은 브라질 철광석 메이저인 발레와의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브라질-중국간 철광석 운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플라리스쉬핑은 이번에 추가로 VLOC 개조용 VLCC 2척을 매입함에 따라 향후 VLOC 선대 척수를 총 7척으로 늘리게 됐다.

플라리스쉬핑은 포스코와 전용선계약에 따라 VLCC에서 VLOC로 개조한 26만 1000dwt급 Stellar Cosmo호와 (1992년 건조)와 26만 4000dwt급 Stellar Daisy호(1993년 건조), 28만dwt급 Stellar Eagle호(1993년 건조), 26만 1000dwt급 Stellar Fair호(1990년 건조) 등 4척의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또 발레와의 전용선계약에 따라 지난 5월에 인도받은 26만dwt급 개조 VLOC인 Stellar Galaxy호(1993년 건조)를 투입하고 이번에 매입한 선박들도 발레와의 전용선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다.

플라리스쉬핑은 현재 운용중인 VLOC 5척과 현재 정기용선중인 VLOC 3척, 내년 상반기 인도받게되는 추가 VLOC 2척 등 앞으로 총 10척의 VLOC 선대를 운항하게돼 세계 2위권의 VLOC 선대를 보유한 선사로 도약할 전망이다.

## 한진해운

베트남 - 북유럽 서비스 개설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컨테이너선 업계 최초로 베트남과 북유럽을 바로 연결하는 직기항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베트남과 미주 동/서안을 각각 연결하는 직기항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번에는 현재 단독 운항 중인 기존 NE-5(아시아 북유럽 서비스 5)노선에 베트남의 주요 무역항인 봉타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당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당사 최초이자 업계 최초의 베트남 - 북유럽 직기항 서비스로서 기존의 베트남에서 북유럽까지 항해 일수를 23일에서 19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타 선사 대비 우위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베트남-북유럽간 교역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베트남 직기항 서비스 실시 이외에도 내년 개장을 목표로 베트남 봉타우 지역에 전용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다.

### ◆ NE-5 (아시아 북유럽 서비스 5)

▶ 기항 구간 (베트남-북유럽 : 19일 소요)

광양-부산-상해(중국)-안타인(중국)-봉타우(베트남)-싱가포르-함부르크(독일)-로테르담(네덜란드)-르아브르(프랑스)-알헤시라스(스페인)-싱가폴-카오슝(대만)-광양

▶ 서비스 개시: 10월17일 (베트남 봉타우항 입항 기준) ▶ 투입 선박: 6,500TEU급 X 9척 (한진해운 단독운항)

## 해영선박

유창근대표 '은탑산업훈장' 수상

해영선박(주) 유창근 대표이사가 금년도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지난 9월 1일 수상했다. 이번 은탑산업훈장 수상에는 해운분야 종사자

의 훈련참여율 향상과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의 성공적인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선박관리 전문회사인 해영선박이 인력양성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세계 일류의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요소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HRD 해외우수 사례를 도입하는 한편 HRD 전담조직 운영과 내실화로 정예 해기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운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기인력의 역량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지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다.



## 현대상선

소니 선정 7년연속 최우수선사 등극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일본 '소니(SONY)'로부터 7년 연속 최우수 선사로 선정됐다.

현대상선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계적인 전자 회사인 소니로부터 최우수 선사상인

'베스트 파트너 선사'(Best Partner Carrier)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니는 매년 자사와 거래하고 있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경쟁력, 협력 관계, 선대 규모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선사'를 선정하고 있다.

현대상선측은 “7년 연속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것은 철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고품격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2009년 미국 물류 전문지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로부터 9년 연속 우수선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미국 물류 월간지 '월드 트레이드 100'의 '2009년 최우수 파트너상', 미국의 전자물류정보시스템 서비스업체인 '로그넷'(LOG-NET)으로부터 '2009년 최우수 전자상거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부산항만공사

노기태사장 복지단체 감사패 받아



노기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은 지난 9월 7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BPA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

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BPA와 부산해양연맹은 지난 2004년부터 소년 소녀가장과 시설(고아원) 아동,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복지관 등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초청, 해양체험활동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바다사랑 정신과 해양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청소년여름해양학교'를 열었다.

모타보트와 카타마란, 래프팅,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여름해양학교는 그동안 총 7,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노 사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부산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부산항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양현재단

개도국 백신연구 후원금 전달



양현재단(이사장 최은영)은 지난 9월 17일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로 양현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IVI 기빙파트너로

위촉되어 매년 꾸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연구와 보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현재단은 이 밖에도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교육지원, 무료 미술치료교실 운영 등 어린이 환아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해운물류 연구지원, 장학사업, 문화예술지원을 실시하며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인천항만공사(대표 김중태)가 9월 7일자로 20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reen Port, Happy Wave'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내 항만관련공기업 최초이며 인천항만공사가 한 해 동안 펼친 경제·사회·환경분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성과가 소개돼 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UN글로벌콤팩트' 주요 준수사항인 인권·노동·환경·부패 등 4대 분야의 성과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이번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IPA에 최적화된 지속가능경영 관리 이슈를 찾기 위한 중대성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이들 이슈를 체계적으로 실행, 관리, 모니터링, 개선 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통합 관리체계 구축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성과 나열식의 진부한 보고서 형식에서 탈피하여 핵심이슈 별 구체적 추진 과제와 관리 목표의 선정에 따른 체계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약속(commitment)의 균형 잡힌 공시를 주요 목적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고객만족활동, 임직원 가치증진, 윤리경영 등과 같은 차별적 활동들이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임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지속가능경영이 전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타이틀은 사내 공모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낸 'Green Port Happy Wave'로 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이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사내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2000년 연간 보험료 100만불규모에서 한국해운시장에 선주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대표이사 이운재)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현재 207개 선사, 800척, 890만톤, 연간 보험료 2600만불을 보유하고 있는 KP&I는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가입톤수 2000만 총톤수, 연간 보험료 1억불 달성을 추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KP&I는 2010년 10월 5일 (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P&I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이 행사에서 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정이기, 전)해운물류국장 문해남, Korean Re. 대표이사, 전)Lloyd's Syndicate 소속 Jonathan Jones, 전)KP&I 윤민현 전무가 설립공로패를 수상하였고, 해사재단 이사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 전무 김영무, Marsh Lodon의 Kenneth Alston, 전)동원수산 사장 송장식, 장금상선 회장 정태순, 태영상선 사장 박영안, 한진해운 사장 대표이사 김영민, 현대상선 사장 대표이사 김성만, KP&I 문병일 상무가 그 간 KP&I의 발전에 공헌한 바에 대해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KP&I는 외형적인 성장, 안정적인 비상준비금 확보 및 우리 해운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P&I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근 우리해운시장으로부터 신뢰와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7년 보험 갱신시점을 계기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여 최근 4년간 연간보험료가 4.3배로 성장하였고 창립초기와 비교하면 보험료 규모가 26배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 성장의 배경에는 국제 P&I Club으로부터 342척의 선박(총 보험료 약 1500만불)을 Korea P&I로 이적하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KP&I 설립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해외로 유출되지 않은 보험료가 약 8000만불, 해운업계의 경쟁효과에 따른 보험료 절감 누계액은 약 5500만불( 658억), 그리고 지난 11년간 (2000-2010) 333%나 되는 국제 P&I Club의 누계 일괄 인상율의 54%에 불과한 180%의 누계 일괄 인상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초 설립취지였던 “한국해운의 배상책임보험 Infra”로서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일로에 더하여 KP&I는 대형선에

대한 인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국제 P&I 클럽과 High Deductible 방식의 공동인수를 개시하였으나 일부 클럽의 견제를 받아 1년 만에 중단하였던 KP&I는 2008년부터 유사한 방식의 공동인수를 재개하여 현재 일부 대형선박들을 이 형태로 인수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다 많은 대형선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 P&I 클럽과의 협력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Quota-share Co-insurance 방식 공동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동인수 방식은 High Deductible 방식 하에서 KP&I와 국제 P&I 클럽 간 담보영역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선사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대형선의 가입이 용이하게 개선한 것이다. KP&I는 국제 P&I클럽과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정이 완료되는 대로 대형선을 대상으로 Quota-Share Co-insurance 방식의 공동인수를 실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대형선 인수규모를 확대하면서, 국제 P&I클럽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토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해양대학교

세진중공업과 산학협력 MOU체결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지난 9월 14일 (주)세진중공업과 대학 본부 3층 접견실에서 '산학협정식 및 대학발전기금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협정은 양 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래의 중추적 성장 동력이 될 해양레저산업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확보를 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술자문, 연구지원 및 외부수탁을 포함한 공동연구 수행 △ 학술자료, 기술정보 등의 교류 △연구시설, 장비 및 공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날 협약과 더불어 (주)세진중공업 윤종국 회

장은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을 이끌 훌륭한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전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은 "뜻에 따라 해양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해양특성화종합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주)세진중공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해운조합

선원자녀 60명에게 장학금 전달



한국해운조합(회장 박홍진)은 제18대 이사장으로 이인수(56, 사진) 전 해양안전심판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9월 13일 해운조합 총회 승인에 이어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의 임명 승인을 받은 이 신임 이사장은 2010년 9월 19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오는 20일에는 인천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하여 추석연휴 특송대비 수송시설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하며 본격적인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이인수 이사장 취임식은 9월 28일(화) 오전 11시 해운조합 등촌동 사옥에서 진행되었다.